

제24호 한보철강공업(주) 오태환 차장



함께해요!안전작업!함께가요!안전한보!


차가운 바람에 손도, 얼굴도 빨갱게 얼어버렸다. 호~호~손을 불며 들어와 따뜻한 한 꿀차 한잔에 몸을 녹이면, 달콤한 꿀내음에 피로도 풀리는 듯하다. 꿀단지 속 가득 담긴 꿀처럼 진득한 우리 시대의 안전인을 찾아 충남 당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사나이

군 제대 후, 의사는 환자의 병을 낮게 하지만 그러한 환자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병에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안전관리자라는 친구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하여 안전에 뜻을 두게 되었다는 오태환 차장은 대학 시절 학생회장직을 맡으며 8번의 방학동안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을 다녔을 만큼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산골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일차집을 통한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도왔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안전을 하는 지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는 그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사나이이다.

■ 근본 원인을 찾고 KOSHA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120만평의 부지위에 최첨단 설비와 조업기술을 도입하여 철근, 열연·냉연제품 등을 생산하는 한보철강공업(주)에 94년에 입사하여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한보철강 안전의 산증인이다. 업무 특성상 위험요인이 많고 사고 역시 그치지 않자 사고의 원천 봉쇄를 위해 설비 점검 및 보완, 교육, 홍보 캠페인 등에 혼신을 다한 그의 노력은 근로자의 안전마인드 형성과 동종업계 최저 수준의 재해율이라는 결과로 대변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재해 곡선이 다시 상승함을 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던 중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KOSHA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직원들 스스로가 배우고 익혀 한보철강 안에 정착시키고, 한보철강의 일부로 거듭나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오태환 차장의 바램이다.

‘차장님은 어쩔 수 없는 안전맨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직원들을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모두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터를 닦는 한보철강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다. 가족이 서로의 잘못을 탓하지 않듯, 직장 내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안전관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진정한 안전 강국이 이룩된다고 강조하는 그는 오늘도 밝은 웃음과 함께 현장으로 향한다. 

〈성호연기자〉